

■ 인물탐방 — 아시아공동체학교 박효석 교장

진정한 글로벌 인재 양성 꿈꾸다

문현4동에 전 세계 16개국 아이들이 모인 학교가 있다. 바로 '아시아 공동체 학교'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여 학습의 장을 이루고 있다.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일등공신인 박효석 교장으로 부터 그동안의 숨은 과정을 듣는다.

그는 교육과는 무관한 건설업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모임에서 동료끼리 주고받던 대화를 옆에서 우연히 귀담아듣게 됐다. '다문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문화자녀 문제 심각성 느끼다

무슨 문명의 장난이었던지 그 모임을 떠나도 그들의 대화가 뇌리에 서 떠나지 않았다. 소외되고 위축된 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실마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다.

수소문 끝에 친구(김태균)의 도움으로 문현동 허름한 상가(현재 '조마루감자탕' 자리)는 새로 지은 건물이다)에서 조촐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2005년 3월 설립 초기에는 10여 명으로 시작된 소규모 대안학교였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게 된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취지였다.

개교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일이었



박효석 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교정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다. 또한 아직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후원이 없다보니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기관이나 자원봉사자도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을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일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몫이었다.

개교 하고보니 가장 시급한 것이 억눌린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이 급선무였다. 많은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회적 냉대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려면 먼저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언어, 미술, 음악 치료였다. 2008년부터는 다문화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도 했다.

다문화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다문화 아이들의 고민이나 고충을 그들

의 언어로 들으며 풀어나가는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12개국에 200만원씩을 보내 책을 배송 받았다. 이 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매일 책을 보며 소통을 하고 있다.

4개월간 교사 말끔히 정리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다문화 교육의 산실로 만든 것은 청소년대사관이다. 2011년 옛 배정초등학교 자리로 옮기고 부터다. 황량한 학교 건물을 보고 박 교장은 감동이 많았다고 한다. 손발 곳이 너무 많아 염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개월을 고민하다 해보라고 결단을 내렸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우러져 교실 쓰레기를 걷어내고 못을 박고 폐

인트칩을 했다. 언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들이 사용할 교실을 쓰고 가꾸는 일에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깨끗해진 교실마다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9개국 대사관이 만들어졌다.

버려져 있던 폐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 구청 청소행정과였다. 대형 트럭 5대 분량을 실어나갔다. 또한 구청에서는 식당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문화가 대세를 이룰 것 확신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행사는 '세계귀신축제'다. 이 축제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희귀한 귀신 문화를 소개하는 일종의 '글로벌 할로윈 데이'다.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나리별 귀신으로 분장해서 퍼포먼스를 벌인다. 귀신 축제를 보기 위해 2시간이나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 교장은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비전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국인 부모 아이들도 다니고 싶은 학교,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습득해서 거둔다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박 교장의 포부다. 그 꿈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능숙 기자

소외계층 보살피는 역할 다할 터

문수사 지원스님 남구불교연합회장 취임

문수사 지원스님이 지난 19일 남구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남구청장과 서용교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신도 등 500명이 참여해 지원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지원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데 종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남구불교연합회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전하는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연합회는 남구지역 사찰과 암자를 아우르는 모임으로 최근까지 남·수영구연합회로 활동해 오다 이번에 분리, 새로운 사업을 펼쳐게 됐다.

지원스님은 연합회의 역할에 대

해 사회 소외계층을 살피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전주교와 개신교 등 관계자와 힘을 모아 종교협의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님은 또 UN기념공원과 앞으로 들어서게 될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평화기념관 등이 남구에 위치한 만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기리고 위로 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원스님은 지난 84년부터 문수사와 인연을 맺고 30년 가까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통일외의 중요성을 중생들에게 일깨우며 98년부터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워드아시아 재단 이사장으로서 병 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시아 각국의 주민을 돕는 일에도 열정을 쏟으며 참된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경희 기자

전용구장 마련에 최선

남구배드민턴연합회 서 정 호 회장

"남구배드민턴동호회원들의 오랜 숙원인 전용구장을 마련하고 전국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정호(사진 왼쪽) 남구배드민턴연합회장은 올해 초 취임과 동시에 남구지역 16개 클럽을 순회하며 회원들과 대회의 시간을 가졌다. 1150여 명의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합회의 사업방향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전용구장 마련이 가

장 큰 현안임을 알고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올 봄에는 시 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원하고 있다.

서 회장은 "동호인 수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합회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성적을 거두기 위



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용구장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구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 제작

(주)varol 대표이사 배 규 범

"지역 내에서 양심적 경영을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도우며 함께 상생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산남구 대연동 경성대 인근에서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주)varol을 운영하는 배규범 대표이사(31)의 회사 운영방정이다.

2011년 남구 대연동에서 첫 간판을 내건 벤처기업 'varol'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명함, QR 코드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다. 이미 수영구, 동구, 사하구 등 부산의 수많은 관공서부터 일반 기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까지

그 실력을 인정받은 내일 있는 신생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varol'의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상가검색 및 소개, 실시간 길 찾기, 예약까지 손쉽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 시작 6개월만에 이미 100여곳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배규범 대표는 "어렵게부터 작은 가게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인지 영세한 가게들이 홍보비용의 부담 또는 방법을 몰라 대자본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



황들을 많이 봐왔다"며, "저희 기술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지역 공동체를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051)610-0453 ~4번으로 연락하면 컨설팅부터 모바일웹 제작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 남구 위상 높였다



서상환 화백



김정화 수필가



김하주 화백



이말레 시인

서상환 화백
부산시문화상 수상
김정화 수필가
수필집 '하얀낙타' 출간

김하주 화백
'독' 관련 작품 전시

이말레 시인
'그렇게 ...' 시집 발간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하며 문화중심도시 남구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원로작가 서상환 화백이 제56회 부산시문화상 시각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서 화백은 지난 64년부터 지금까지 40여회의 개인전을 열고 단채전에 300여회 참가하며 서양화와 관화 장르를 넘나드는 풍부한 미적 유희를 작품세계에 투영해 오며 지역화

단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지 기자인 김정화 수필가는 자신의 두 번째 수필집 '하얀 낙타'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그는 서문에서 '사막 길에서 홀로 걷는 흰 낙타의 삶처럼 글의 길이 순탄치 않더라도 묵묵히 견뎌내겠다'라고 작가의 의지를 밝혔다.

남구미술회 회장을 역임한 김하주 화백도 지난 1일부터 갤러리 324 개관 기념 초대전 '독' 어머니의 노래 김하주 展을 열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독을 주제로 한 작품 11점이 선을 보이고 있다.

이말레(대연1동)시인은 최근 자신의 첫 시집 '그렇게 살아도'(도서출판 작가마을)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주변부 삶들의 고통과 인간으로의 따뜻한 응시를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 수록돼 있다. 충남 부여 출신의 이말레 시인은 문예시대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으며 부산시인협회와 남구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람과 사람

장애인복지 후원금 전달



노재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장은 지난 7일 열린 통일시대시 민교실에서 장애인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 남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의장상 수상



안정애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회장은 지난 5일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부산지사 연차대회 및 봉사원대회에

서 사람과 봉사자 적십자 정신을 실천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중앙협의회의 의장상을 받았다.

2년제 예원 어머니 중(고등)학생 모집

■모집안내

- 대상: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이주여성 입학가능)
- 모집기간: 2013. 10. 1부터 선착순 모집(전화접수 가능, 현재 접수중)
- 오래전 학업포기자 편입학 가능

■특징

- 전국 최초 2년제 교육부 실험지정(16년 전통의 어머니 전용 학교)
- 2년만에 졸업(교육부 인정 정규 졸업장 수여)
- 중학교·입학금, 수업료, 책값 졸업시까지 국비지원
- 부산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현재 이주 여성 재학중)
- 최고 오래된 전통의 어머니 전용 학교
- 어머니 학생 전용 주차장 완비
- 주5일제 수업: 오전(10시), 오후(2시), 야간(6시) 선택 가능
- 고등학교 졸업생: 무시험 대학입학 가능

예원여자중학교
예원여자고등학교

위치: 금정구 금사동(동일고무벨트, 파크랜드 위)
지하철 4호선 금사역 10분 거리버스 42, 99, 179, 마을버스 6번(온천정역)
전화: (051)526-1852 ~ 3 / 529-4430
http://yewonqueen.hs.kr

제수 폐백 이바지 신행반찬 전문

최고급 식재료로 맛과 정성을다해 귀객의 품격을 높여 드리며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최상의 혼례음식을 책임지겠습니다.

101호 건강죽 각종피를 장아찌 즉석무침 국
102호 제수 폐백 이바지 신행반찬 행사음식

H. 051-623-1017
P. 010-7122-2588

남원1동 해변시장상가 556번 4호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도 형제처럼..."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대표 배도성
비즈니스지원팀 남구협의회 회장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491-10 TEL. (051)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TEL. (051)582-1041

가장병원 장례식장 TEL. (051)724-1024 오동산업 TEL. (051)627-4880

부산 스카프·골프클럽 (스카프, 골프연습장, 스코프클럽) TEL. (051)625-8626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빈소사용료 30%할인
장의용품비 30%할인

어머니 중.고등 학생 모집

1년 3학기제로 2년이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알랑가 몰라!!! 나이 들어 배우는 이 즐거움은~ 어머니 중·고등학교로 오세요~

■대상: 성인여성 누구나 ■모집인원: 중2학급(90명), 고2학급(90명)

■접수기간: 선착순모집, 2014년 3월 3일 입학식

■특전: ① 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 국고지원(중학교 과정) ② 미용사 면허증 발급(고등학교 과정) ③ 통학버스 무료운행(서면 전철역, 10분 거리 위치) ④ 국·영·수·한문·컴퓨터 등 기초부터 쉽게 ⑤ 교육부 인가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⑥ 중·고 중퇴자 전환영, 중퇴당시 학력인정 회관시설내 중·고 졸업 가능함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성인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119번길 문의전화 (051)805-6131~4

검색창에 [부산미용병설중고등학교]로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www.bbam.hs.kr

교육청에 신고된 전문과외!!

NAVER 교육인 검색 가능!!
24시간 연중 무휴 상담가능!!

- 대학생이 아닌 전문과외선생님!
- 초, 중, 고, 일반 맞춤과외 프로그램
- 1:1 방문 케이스별 자기주도학습(My Mento)
- 미취학·검정고시·편입·공무원 1:1 맞춤프로그램
- 대한민국 최초, 120시간 교육받은 정규직 과외선생님들로 구성!

성적향상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의 051)755-3980
www.smartdalu.com